

흩날리는 꽃바람... 설레고 들뜨게 하는 봄소풍

사계절 화사한 꽃과

싱그러운 자연이 아름다운 고창군에서

'제1회 벚꽃축제'가 열린다.

고창벚꽃축제는 '사랑인가, 봄'을 주제로
고창읍 석정리 727번지 일대에서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 계속된다.

석정 벚꽃길은 수령 20년 이상 된

벚나무들이 1km에 걸쳐 장관을 이룬다.

해마다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벚꽃 명소 중 하나다.



고창읍 석정온천지구에서 개최

고창은 이미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인다. 벚꽃은 미분 가지를 뒤집고 용개도 선분홍 꽃망울을 터뜨려 벚꽃 터널을 만들고 장관을 이루었다. 싱그런 생명력을 머금은 순백의 꽃망울에서 생명을 다하고서 내리는 연분홍 푸른까지 벚꽃은 그 깊은 기간에도 다양한 모습을 선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날, 어린이콘서트로 문 열어

첫날인 31일, 어린이콘서트가 벚꽃축제 개막을 알린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고창군 아이들을 불러모아 벚꽃길 걷기, 어린이뮤지컬, 솜사탕 아트쇼 등이 열린다.

오후 2시에는 14개 읍·면 주민들과 사전 신청자들이 이색복장을 착용하고 석정벚꽃길 나들이에 나선다. 벚꽃 축제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전야제 행사가 진행되고(자전거타운경, 강 예술 등) 밤에는 형형색색의 야간 조명이 벚꽃의 매력을 선보이며 환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날 저녁에는 청사초롱을 들고 벚꽃길을 걷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둘째날, 가족들의 노래와 댄스로

4월 1일에는 벚꽃 군민 화합페스티벌로 사전 신청한 가족과 모임등에서 노래와 댄스 경연 대회가 펼쳐진다. 저녁 7시에는 주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인기가수(10cm, 김태연, 신유) 초청 공연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 팝페라 가수 공연으로 마무리

4월 2일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페스티벌이 열리고, 저녁에는 팝페라 가수의 공연으로 화려했던 벚꽃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상설프로그램 둘째

상설프로그램으로 '고창 그리고, 봄'은 흩날리는 벚꽃나무 아래 아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족 나들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따뜻한 봄 하면 빼질 수 없는 '블리썸 미니 운동회'가 준비 돼 있다. 미니 줄다리기, 고리던지기, 색판 뒤집기 등 가족 간 화합의 시간을 가져 보길 바란다. 이외에도 '벚꽃 전통 민속놀이 체험', '벚꽃 송시방 만들기', '사랑 벚꽃 어린이 놀이터' 등이 운영된다.

▲방문객은 편하게 벚꽃은 이롭다

처음 열리는 벚꽃 축제인 만큼 고창군은 방문객 편의와 아름다운 벚꽃을 선사하기 위해

어린이콘서트부터 팝페라 공연까지 볼거리 · 즐길거리 다채
터미널부터 축제장까지 매일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 운행
석정벚꽃길 · 고창읍성 등 방문 인증시 선물 주는 이벤트도

◀ 벚꽃축제 행사장 배치도

을 주는 이벤트도 열린다.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 외침을 막기 위해 백성들이 직접 자연석을 쌓아 만든 성곽이다. 매년 이른 봄이면 화사한 순백의 벚꽃이 곡선의 성곽과 어울려 절경을 이룬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헛박한처럼 흘날리는 성곽 위를 걸으면서 봄날 최고의 호사를 누려보자.

교촌마을 뒤편 꽃동산(배수지)도 고창 최고의 벚꽃명소로 손꼽힌다. 동네를 에워싼 산자락에 산벚꽃이 피어나며 희고 붉은 꽃세상이 열린다. 꽃동산 정상에 서면 고창읍성과 읍성의 꽃잔치가 근사한 풍경을 만든다.

십덕섬 고창군수는 "사랑의 계절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축제가 1000만 관광객 유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벚꽃과 세계유산이 어우러진 고창으로 오셔서 벚꽃 비를 맞으며 가족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지평성 JIPYEONGSEON 김제

www.jpsmall.com

NAVER 지평선물 검색

김제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